

탈신화와 새로운 신화 만들기 - 자메이카의 내니

박 병 규

블루 마운틴 산속에서 총성이 들린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도망친 아프리카 노예들과 이들을 토벌하러 나온 영국군이 전투 중이었다. 영국군이 우세한 화력으로 노예군을 압박하고 있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싸움터 한가운데로 홀연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알몸의 여자였다. 까만 피부의 여자는 영국군을 향해 엉덩이를 내밀고 엎드렸다. 돌연한 사태 앞에서 한 순간 멍하니 쳐다보던 영국군은 이내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아간 총알은 여자의 항문 속으로 모조리 빨려들어갔고, 잠시 후 영국군을 향해 되돌아왔다. 영국군 진영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패색이 짙던 노예군은 내니(Nanny)의 도움으로 다시 한 번 승리했다.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 동쪽에 위치한 블루 마운틴은 명품 커피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비옥한 땅, 풍부한 강수량, 해발 1700미터 이상의 고지대 산비탈에서 자라는 커피는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왕실과 귀족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자메이카 민중은 ‘블루 마운틴’이라는 단어에서 커피보다는 18세기 초반에 활동한 아프리카 노예 출신의 여장부 내니를 먼저 떠올린다.

내니는 누구인가? 일설에 따르면, 내니는 1686년경 서부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일가족이 노예로 잡혀 자메이카로 팔려온 내니는 포트 로열(Port Royal, 현재의 킹스턴) 외곽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동이 틀 때부터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던 내니는 4명의 오빠 또는 남동생(Accompong,



블루 마운틴 산맥

Cudjoe, Johnny, Quao)과 함께 탈출하여, 블루 마운틴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1720년부터 1739년까지 영국군 토벌대에 맞서 싸웠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런 전기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노예는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지리적으로 확실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또 일가족이 노예가 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농장에 일가족을 송두리째 매매하는 경우는 없었다. 노예가 집단적으로 도주하거나 반란을 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니는 생물연대조차 불확실한 인물이다. 문헌 기록에는 내니가 단 네 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아프리카의 종교 “오베아(obeah)를 믿는 늙은 반란군 여자 내니를 사살”한 공적으로 윌리엄 쿠퍼(William Cuffee)가 상을 받았다는 1733년 3월 29~30일자 『자메이카 의회 신문』 기사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공

통된 의견이다. 쿠파가 묘사한 내니의 모습이 통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내니에 관한 문헌 기록은 불확실하고 또 빈약하기 이를 데 없으나 자메이카 사람들은 구전(口傳)이라고 부르는 말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 번은 노예군이 포위망을 뚫지 못해 굶어죽을 지경이었다. 내니는 꿈속에서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무언가 잡혔다. 호박씨였다. 그 씨를 땅에 뿌리자 금세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노예군은 허기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이후로 그곳을 ‘호박 언덕’(Pumpkin Hill)이라고 부르고 있다.

게릴라 전술과 관련한 일화도 많다. 어느 날 도망친 노예 수색에 나선 영국군 병사가 낙오를 했다. 밀림을 헤매다가 총을 내려놓고 나무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러나 그 병사는 비명조차 내지 못하고 즉사하고 말았다. 병사가 기댄 나무가 사실은 위장한 노예군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이런 구전을 일종의 우화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두에 소개한 일화에도 불구하고 내니는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호박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베아 의식을 통해서 내니가 도망친 노예 사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준 것으로 이해한다. 한마디로, 내니는 도망친 노예들이 블루 마운틴의 험준한 산속에 마련한 거점(Nanny Town)에서 영적 지도자이자 뛰어난 게릴라 전술가로 활동했다는 해석인데, 자메이카 민중의 구술문화에서 신화화된 내니에게 논리적 합리성과 역사적 개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탈신화를 꾀하는 것이다.

사실 내니의 탈신화는, 1962년 자메이카 독립의 주축 세력이자 현재도 지배엘리트로 자리 잡고 있는 흑백혼혈인(mulatto)의 민족주의(좀더



자메이카의 500달러 지폐와 내니의 초상화

정확하게는 크레올 민족주의) 담론 형성 작업의 일부였다. 이 흑백혼혈인은 자신들을 유럽인의 후손이자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메스티소와 유사하다. 잔혹한 노예제와 식민통치는 비판하면서도 서구적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여 근대 국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노예의 후손, 즉 자메이카 민중과는 차별되는 존재라고 의식하고 있다.

독립 이후 흑백혼혈인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메이카 민중을 포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조상, 단일한 국민”(Out of Many, One People)이라는 국시를 내세우고, 민중이 숭앙하는 내니를 공식 역사에 편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아무리 카리브 해가 마술적 사실주의의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내니가 주술로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날 것으로 역사에 삽입할 수는 없었으므로 비합리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아래의 공식적인 기술처럼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었다.

내니

내니타운에서 거주하고 사망하다

도망친 노예 내니는 자메이카의 일곱 국민영웅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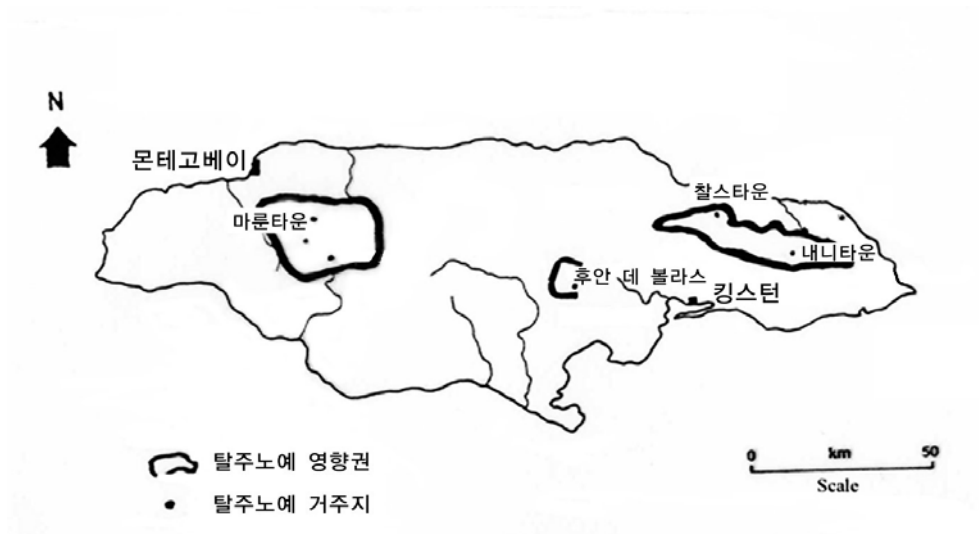
로, 용맹한 남자들 못지않은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주었다. 내니는 아산티 부족의 용감한 전사처럼 갖가지 전술로 영국인들을 곤경에 빠뜨렸다. 독립 이전의 국민영웅이 그러하듯이, 내니 역시 1734년 무렵에 영국인들의 사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도망친 노예 내니는 속박에 결코 굴하지 않는 정신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탈신화 작업을 거쳐 내니는 1976년 자메이카의 일곱 국민영웅(National Heroes) 가운데 한 명으로 옹립되었으며, 거친 산악을 누비고 다니는 여전사다운 강인한 이미지의 얼굴로 500달러짜리 자메이카 지폐에 등장했다.

그러나 내니를 앞세운 흑백혼혈인의 크레올 민족주의는 식민시대 이후 고착화된 사회·경제·문화적 이원성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소수의 흑백혼혈인은 지배엘리트로서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서구적 근대화를 지향하며, 기독교 믿고, 자신은 백인도 흑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다



학교 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메이카 국민영웅 7인의 초상화



18세기 자메이카 탈주 노예의 근거지

수의 빈곤한 민중은 아프리카를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고, 오베아나 라스타파리아니즘과 같은 종교를 믿으며, 문화 또한 아프리카적이라고 간주한다. 이렇게 양분화된 사회에서 흑백혼혈인이 외치는 크레올 민족주의나 국민화합은 공허한 정치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크레올 민족주의는 근대 자메이카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1938년 인민국가당의 창당과 1940년 자메이카 노동당의 민족주의 기획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일곱 명의 국민영웅 가운데서도 인민국가당을 창당한 노먼 맨리와 1943년 노동당을 설립한 알렉산더 부스타만테를 실질적인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한 마커스 가비나 노예 반란을 주도한 내니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맨리와 부스타만테에 비교하면, 거친 표현일 수도 있으나, 구색 맞추기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20세기 초엽의 흑인 민족주의 등장과 20세기 중엽 이후 지식인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아프리카 노예 후손의 영향으로 이른바 거꾸로 본 자메이카 역사를 쓰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1830년대에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민 신분이 된 흑백혼혈인 중심의 역사 서술이 아니라 1655년 영국이 이 섬을 지배하기 이전부터 부단히 자유를 찾아 탈주

한 아프리카 노예 중심의 민중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탈주 노예와 탈주 노예 공동체 및 조직적인 저항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근대세계체제의 어두운 그늘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아프리카 노예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강조한다. 따라서 동시대 자메이카 서부 쿠드조타운(현재의 마룬타운)에서 탈주노예를 이끌고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에는 영국군과 협상한 쿠드조와 달리 동부 블루마운틴에서 끝까지 저항한 내니는 불굴의 저항 정신을 체현한 인물로 추앙받고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내니는 자메이카 공식 역사 서술에서는 생물연대를 명기하지 않고 있으며(위에서 인용할 글에서 보듯이 “내니타운에서 거주하고 사망하다”는 문구로 대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존의 여부조차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키피디아의 내니 항목에서는 1686년 경 아프리카 서부의 가나에서 태어난 아산티 부족이었으며, 이후에는 자메이카로 끌려와 탈주 노예로 노예제에 저항하다 1733년에 사망한 인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글 서두에 소개한 총알잡기 일화는 영국 식민지배자들이 내니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크레올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카마우 브레드웨이트가 소개함으로써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고, 내니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내니를 여왕(Queen Nanny)으로, 위인(Granny Nanny)으로, 국모(Mother of Us All)로 추앙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눈으로 보자면, 발가벗고 전장으로 뛰어든 내니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이다. 내니는 노예제 철폐와 자유의 추구라는 이상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게 내니에 관련된 이야기나 담론 또한 고상하고 엄숙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신화 만들기이다.

지식인들은, 크레올 민족주의를 옹호하든 흑인 민족주의를 옹호하든, 너나 할 것 없이 내니가 엉덩이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를 B급 정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혹 이 일화가 영국군이 내니를 비하하려고 꾸며냈다고 할지라도 자메이카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다는 사실에

서 우리는 일화 자체에 담긴 라블레적 웃음의 힘을 감지한다. 그 힘이란 피부색과 혈통이 어떠한 비인간적인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는 상대의 독단성과 경직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일방적이지 않다. 이야기 속의 내니는 상대를 희화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희화하기 때문이다. 위엄이라든가 비장함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멀다. 그 대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니가 바로 자메이카 민중과 같이 호흡하는 산 역사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니를 고상하고 엄숙한 인물로 만들어 항구한 청동상을 봉헌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유무형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자메이카 민중의 열망하는 화석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박병규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